

강석희 시장 본격 선거운동

18일 '연방하원' 출정식

강석희 어바인 시장이 오는 18일 12시 정오 어바인 레이크뷰 시니어센터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강석희 어바인 시장은 오는 6월5일 프라이머리 선거를 앞두고 4개월 동안 표와 선거자금을 모으는 두 가지 일을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강 시장은 이번 선거운동 출범식을 시작으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지난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강 시장 선거의 상징적이 모습으로 정착한 가가호호 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른 전략은 홈페이지(kangforcongress.com)를 중심으로 잘 알려진 SNS 페이스 북(www.facebook.com/SukheeKang2012)과 사진 전문 사이트인 플린클(flickr-Sukhee Kang's photostream)을 통해 젊은이들의 표심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석희 시장의 또 다른 숙제는 이 기간 부족한 선거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금액을 포함해 지난 1월 말까지 모

은 자금은 총 36만6,000달러, 45지구 같은 선거구에서 맞붙어야 할 존 캠벨 의원의 비축금으로 전해지는 100만달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오는 2월 말 워싱턴을 방문해 유력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만나 우호를 다질 예정이며 3월 초부터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주 일대를 돌며 선거자금 모금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석희 시장은 "3월 중순 LA 지역 민주당평통을 중심으로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2/16/12 KC

Korea Times